

동북지역 최초의 민영은행 설립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jwchoi@kiep.go.kr)

주요내용

- 5월 16일 동북지역 최초 민영은행인 이렌(亿联)은행이 지린(吉林)성 창춘(长春)시에서 영업을 시작함.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설립 장려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영은행이 잇달아 설립되고 있음. 민영경제 발전이 더딘 동북지역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혼합소유제 개혁과정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영은행 설립이 요구되었음.
- 민영은행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또한 동북지역에서의 핀테크 활용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1. 이슈 현황

■ 5월 16일 동북지역 최초 민영은행인 이렌(亿联)은행이 지린(吉林)성 창춘(长春)시에서 영업을 시작함.

- 2016년 12월 16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2017년 5월 2일 영업개시허가를 받음.¹⁾
- 투자회사인 중파(中发)금융지주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지린싼콰이(吉林三快)과학기술주식회사가 최대 주주로 지분은 각 30%, 28.5%임.²⁾
 - 중앙정부는 최대주주에게 주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은행 설립 시 단일 주주의 주식보유 비중을 30%이하로 제한했음.³⁾
- 주 업무는 중소기업·농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클루시브 금융⁴⁾이고, 기존 오프라인 업무뿐만 아니라 인

1) 「东北首家民营银行吉林亿联银行正式营业」(2017. 5. 17), 长春市政府网站 .

2) 중파금융지주는 1996년 베이징에 설립된 총자산 1,000억 위안 규모의 대형 주식투자기업이고, 지린싼콰이는 요식업 O2O기업인 메이탄디엔핑(美团点评)을 소유한 싼콰이 그룹의 자회사임.

3) 「第二批民营银行发起人股东大起底：互联网基因频现」(2017. 1. 10), 证券日报.

4) 인클루시브 금융(Inclusive finance, 普惠金融)은 기회평등 요구와 상업의 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영세기업·벽지 거주 농민·도시저소득계층 및 장애인·노인·취약계층 등에게 적절하고 활용가능한 금융서비스를 하는 것을 의미함. 「直击世

터넷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은행을 표방함.

2. 원인과 분석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설립 장려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영은행이 잇달아 설립되고 있음.

- 중국에서 은행은 기본적으로 국유의 틀에서 관리되었으나, 2013년 중앙정부는 민영은행의 설립을 장려하기 시작함.⁵⁾
 - 2013년 이전 민영은행의 설립은 예외적인 허가사항이었으며, 최초의 민영은행은 1997년 민간자본 85%가 투입되어 설립된 민생(民生)은행이나 등기자본 일부가 국유기업 소유로 순수한 의미의 민간금융기구는 아니었음.
- 민영은행 허가의 일차적인 목적은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소로,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영세·중소 기업위주의 영업을 장려함.
 - 기존 은행은 정부가 보장하는 예대마진 속에서 안전한 국유자산을 선호하는바, 리스크가 높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출할 유인이 없음.⁶⁾
- 민간기업은 재무투자 확대, 금산융합을 통한 밸류체인 보완 등을 이유로 민영은행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⁷⁾
- 금융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대기업들이 민영은행 설립에 참여하여 인터넷은행, 법인영업 전문은행, 특정지역대상 은행 등 사업부문 및 범위가 다각화됨.
 - 특히 Tencent가 출자한 웨이중(微众)은행, Alibaba가 출자한 저장(浙江)성의 왕상(网上)은행 등은 대주주의 인터넷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인터넷 은행임.

界互联网大会|央行副行长：发挥好互联网+普惠金融的潜力和优势」(2016. 11. 18), 第一财经.

5) 小島淑男(2004), 「現代中国における民営銀行創設への道のり」, 産業経営研究, 26号.

6) 「중국의 민영은행 확대 정책과 설립 동향」(2014. 4. 16), KIEP 지역경제 포커스.

7) 「중국 민영은행 영업 현황 및 차별화 전략」(2017. 2. 20), Weekly KDB Report.

표 1. 2014~ 2017년 인가된 중국의 주요 민영은행

시기	은행명	포지션	자본금 (위안)	제 1주주 (지분율)	영업 여부
2014년 (5개)	선전첸하이웨이중	소액예대출(인터넷은행)	42억	Tencent(30%)	0
	원저우민상	중소형기업·개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특정지역대상 영업	20억	저장정타이그룹(29%)	0
	톈진진청	법인영업 전문	30억	톈진화베이그룹(20%)	0
	저장왕상	소액예대출(인터넷은행)	40억	Alibaba(30%)	0
	상하이화루이	소형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특정지역대상 영업(상하이FTZ입주)	30억	상하이쑤야오그룹(30%)	0
2016년 (11개)	충칭푸민	소형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30억	한화금융지주(30%)	0
	쓰촨시왕	인터넷은행	30억	신시왕그룹(30%)	0
	후난산상	산업체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30억	싼이그룹(30%)	0
	안후이신안	민영기업·중소형기업·가주민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특정지역대상영업	20억	난샹그룹(30%)	준비중
	푸젠화통	비즈니스·물류·공급체인·첨단기술기업 대상 특색 금융서비스제공(인터넷은행)	24억	용후이차오스(22%)	0
	우한중방	신기술 개발 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인터넷은행)	20억	취얼홀딩스(30%)	0
	베이징중관춘	창업·창업투자·혁신형 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40억	용요우소프트웨어(29.8%)	0
	장쑤쑤닝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O2O은행(인터넷은행)	40억	쑤닝원상(30%)	0
	산둥란하이	한중금융협력 서비스, 특정지역대상 영업	20억	웨이까오그룹(30%)	준비중
	랴오닝썬썬	중소형 실물기업의 산업융자 서비스	20억	선양룽성(30%)	준비중
2017년 (1개)	지린이렌	생활 서비스 분야 소액대출 (인터넷은행)	20억	중파금융지주(30%)	0
	광둥커샹	삼농(농업·농촌·농민) 대상 소비금융업무	20억	광둥바오리화신(30%)	0

주: 동북지역의 은행은 음영처리
자료: 각종 언론자료를 토대로 저자정리

■ 민영경제 발전이 더딘 동북지역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혼합소유제 개혁과정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영은행 설립이 요구되었음.


- 동북지역은 국유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구조로, 관료주의 성향이 강하고 시장화 수준이 낮아 민영기업의 융자난 현상이 팽배함.⁸⁾
 - 산업구조 고도화 및 혼합소유제 개혁과정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함.⁹⁾
- 따라서 중앙정부는 신동북진흥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말 전까지 동북지역에 한 개 이상의 민영은행을 설립을 하고자 했음.
 - 이렌은행 외에도 랴오닝(辽宁)성의 썬썬(振兴)은행도 영업 준비 중 (표1 참고)

8) 「求解东北投融资困局」(2017. 1. 10), 上证观察家.

9) 「发改委为东北民营经济发展“助攻”」(2017. 1. 13), 中华工商时报.

3. 전망과 시사점

■ 민영은행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또한 동북지역에서의 핀테크 활용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동북지역 민영은행이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소에 기여하고 민영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중소기업 대출 시 발생하는 높은 거래비용·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리스크 관리가 민영은행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투자회사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 최대주주인 이렌은행의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 동북지역에서 진행될 금융과 IT의 결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한국은 미래에셋대우가 기존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네이버 금융 플랫폼을 결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신한금융그룹은 아마존과의 MOU를 통해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¹⁰⁾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증권판 4차 산업혁명 2파전… 미래에셋·네이버 vs 한투·카카오」(2017. 6. 27), 아주경제:「신한금융그룹, 아마존과 디지털 기술 업무 협력」(2017. 6. 28), 연합뉴스.